

# 서 면 질 문 서

김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선진복지 군정실현을 위하여 함께 애써 왔으나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정이나 행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해안 관광도로 준공에 따른 우리군 정책의 연계성 미흡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원의 대형 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 등을 설치하면 그 시설의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우리군 나름의 정책을 수립하고 대형사업의 진도에 따라 시행하므로써 준공과 동시에 모든 시설물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은 이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거제시는 거제~가덕간 연륙교와 항만설치 계획이 확정되자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제시가 인구 50만 거대도시 건설을 계획하는 것을 보고 경상남도가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을 확정했을 때 우리군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99년 12월15일 제74회 정기회시 제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고성군 동해면과 마산시 진전면간 연륙교 설치 및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연계사업으로 생활용수확보, 해수욕장 및 규모있는 어항건설, 문화마을 및 주택지조성, 내산리 고분군 복원정화, 보신음식촌 같은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나

고분군 발굴 및 부지매입에 약간의 투자가 있었을 뿐 지금까지 우리군은 민자에만 기대한 나머지 아무런 대안없이 연륙교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 이는 국가전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실효성은 극히 저조할 것이므로 금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대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우회도로 기능 정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요소 때문에 우회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일방통행 형식으로 운행하고 있어 대형 트레일러가 대부분 철재, 건설, 건축자재 등 초중량급 짐을 실은 상태로 마을중심부를 하루 수십회 통과하므로써 소음·진동·분진·농기계 진입 곤란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고 일방통행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우회도로 입구에 가변도로를 설치하여 우회도로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수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으로 군내 각급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종 특히, 벚꽃 나무에 해충피해가 심하여 외관상 매우 보기 흉할 뿐 아니라 가로수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고사 내지 심한 불균형으로 푸른 경남 가꾸기를 무색케 하고 있는 바 지난 2~3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방 및 방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방제 가능하다면 왜 수년간 피해가 지속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도 확장과 경지정리 동시 시행지구 군도 편입부지를 경지정리 감보(減步)면적으로 확보하여 군도편입 부지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빌미로 오히려 주민의 재산을 침탈한 행정 편의적 행위로 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군도에 편입된 부지대를 관계 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만약 부지대를 지급할 수 없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개선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질문 · 답변사항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해당실과
<p>김 문 수 의 원</p>	<p><input type="checkbox"/> 남해안 관광도로 준공에 따른 우리군 정책의 연계성 미흡에 대한 질문</p> <p>○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원의 대형 사회 간접자본을 설치하면 그 시설의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우리군 나름의 정책을 수립하고 준공과 동시에 모든 시설물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이나 제가 보기에 우리군은 이에 대처가 미흡하다고 봄.</p> <p>○ 최근 거제시는 거제~가덕간 연륙교와 항만설치 계획이 확정되자 아직 착공도</p>	<p>○ 김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안 관광도로 준공에 따른 우리군 정책의 연계성 미흡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고성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하여 심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낙후된 오지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농·수산물 수송의 원활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를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개설하고 있으며,</p>	<p>기 획 감사실</p>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질문 · 답변사항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해당실과
김 문 수 의 원	<p>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제시가 인구 50만 거대도시 건설을 계획하는 것을 보고 경상남도가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을 확정했을 때 우리군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자책을 금할 수 없음.</p> <p>○99년 12월 15일 제74회 정기회시 군정 질문을 통하여 고성군 동해면과 마산시 진전면간 연륙교 설치 및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연계사업으로 생활용수 확보, 해수욕장 및 규모있는 어항건설, 문화마을 및 주택지 조성, 내산리 고분군 복원정화, 보신음식촌 같은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나, 고분군 발굴 및 부지매입에 약간의 투자가 있었을 뿐 지금까지 우리군</p>	<p>○ 마산시 진전면과 고성군 동해면을 잇는 연륙교는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륙교와 남해안 관광도로가 준공되면 우리군은 마산, 창원, 통영, 사천시의 배후도시이자 인접도시로서 상호가 모든 분야에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21세기 비전이 있는 각종 개발전략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p> <p>○ 그 첫번째로 한려수도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경관 조성을 위하여 동해면 일주도로를 8등분하여 배롱나무 등 사계절 푸르고 계절마다 꽃이 피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p>	기 획 감사실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질문 · 답변사항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해당실과
김 문 수 의 원	<p>은 민자에만 기대한 나머지 아무런 대안없이 연륙교 개통목전에 두고 있는 바 이는 국가전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실효성은 극히 저조할 것이므로 금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대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고성읍 송학리에서 동해면 일주도로를 경유, 거류면 용산리에 이르는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여 스포츠인이 다시 가고싶어 하는 동계 육상 전지훈련장소로 만들어 코오롱선수단의 대한육상연맹 소속선수단이 정기적 동계 훈련장소로 우리군을 찾고 있으며 여기서 훈련했던 이봉주선수가 후쿠오카 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육상 동계훈련의 메카로 부상하였습니다.</p> <p>○ 그리고 내산리 고분군은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학술 발굴조사를 통하여 387건 790점을 발굴하였으며 고분군 지정 보호구역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토지매입 감정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 건의하고 고분군 지정 보호구역을 확대 조정하는 등 고대 향토사 조명과 문화유산 복원에 만전을 기할 것 입니다.</p>	<p>기 획 감사실</p>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질문 · 답변사항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해당실과
김 문 수 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욕장은 내산리 지구에 조성을 검토하였지만 검토 대상지의 해안선이 짧고 지형상 급경사 지역으로 기반시설공사에 난공사가 예상되며, 해역이 수자원보존지구로 협의청인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해양수산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개발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li> <li>○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천선착장 및 대천물량장 겸 공동작업장, 돈막 선착장 및 방파제, 좌부천 선착장 등 수리어항 시설을 연장 또는 신축하여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li> <li>○ 그리고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동해면 봉암지구와 내곡지구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배수관로 7.0km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식수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li> </ul>	기 획 감사실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질문·답변사항

질문의원	질문내용	답변내용	해당실과
김문수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밖에도 당항포 확장매립지의 개발과 마동호 건설사업, 운하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이와 연계하여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관련 자원의 정책적 개발로 사업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하여 남해안 관광거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li>   <li>○ 앞으로도 우리군은 남해안 관광도로와 연계한 우리군 정책방향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 고견뿐만 아니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최대한 접목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li> </ul>	기획 감사실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질문 · 답변사항

질문의원	질문내용	답변내용	해당실과
<p>김문수의원</p>	<p><b>□ 가로수 관리에 관한 질문</b></p> <p>○ 푸른경남가구기사업으로 군내 각급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종, 특히 벚꽃나무에 해충 피해가 심하여 외관상 보기 흉할 뿐 아니라 가로수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고사내지 심한 불균형으로 푸른고성가꾸기를 무색케하고 있는 바 지난 2~3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방 및 방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방제가 가능하다면 왜 수년간 피해가 지속되는지 답변 바람.</p>	<p>○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나무 가로수 해충방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 먼저 벚꽃나무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성읍을 비롯한 10개면에 약 6,200여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읍면사무소 주관하에 푸른고성가꾸기사업으로 군민의 현수운동과 식재 참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p> <p>○ 벚꽃나무는 수형과 꽃이 화려하여 군민이 선호하는 가로수종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벚꽃나무 관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병해충 예방 및 방제작업입니다.</p> <p>○ 벚꽃나무 병해충중 잎에 가해를 주는 천공성갈반병, 흰불나방, 벚나무 응애류 등이 주로 피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p> <p>○ 벚나무 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는 신초가 나올 때부터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하여 피해 징후가 발견되는 초기에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이후 기상과 수목생육상태를 감안하여 수시 기동방</p>	<p>환경녹지과</p>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질문 · 답변사항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해당실과
김 문 수 의 원		<p>제를 실시하면 가능합니다만 벚꽃나무가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인력과 방제장비의 절대 부족으로 적기 예찰과 방제에 차질이 초래된 점은 사실입니다.</p> <p>○ 군에서도 매년 3회이상 기동방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당읍면에서 새로운 잎이 나올때 부터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군에 방제지원을 요청토록 조치하겠으며, 군에서도 임업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예찰을 실시토록 하여 병해충 발생징후가 예상되면 즉시 가용 인력과 기동장비를 총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적기 방제가 어려울시는 소요 약제를 읍면에 배정하여 읍면 자체 방제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모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p>	환경녹지과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질문 · 답변사항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해당실과
<p>김 문 수 의 원</p>	<p><input type="checkbox"/> 장기우회도로 기능정상화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위험요소 때문에 우회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일반통행 형식으로 운행하고 있어 대형 트레일러가 대부분 철재, 건설, 건축자재 등 초중량급 짐을 실은 상태로 마을중심부를 하루 수십회 통과하므로써 소음 진동·분진·농기계 진입곤란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위협을 주고 있음</li> <li>○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고 일반통행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우회도로 입구에 가변도로를 설치하여 우회도로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우회도로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그동안 교차로 개선사업 시행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에서 굴곡도로 및 교차로 개선사업은 유지관리 예산형편상 시행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본 교차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조속 시행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li> <li>○ 우리군 자체에서 차선변경 등 간단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경찰서와 수차레 협의함은 물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최소 비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지관리담당 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번 더 건의하고자 하오며, 만약 시행이 어려울 경우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여건 마련에 협조하여 주실것을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li> </ul>	<p>건 설 과</p>

##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질문 · 답변사항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해당실과
<p>김 문 수 의 원</p>	<p><input type="checkbox"/> 군도확장 및 경지정리 동시 시행 지구 군도편입부지 보상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도 확장 및 경지정리 동시 시행 지구 군도 편입부지를 감보면적으로 확보하여 군도편입 부지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빌미로 오히려 주민의 재산을 침탈한 행정편의적 행위로 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군도에 편입된 부지대를 관계 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li> <li>○ 만약 부지제를 지급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년 가을착수 장좌지구 경지정리 시행구역(장좌 6지구)내의 군도편입부지 보상에 대하여는 경지정리사업 시행당시 현지여건상 지구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농로 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사업 수혜자 총회의 사업 시행 동의와 국·공유지 중여지의 감보율 적용 등 물리민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 농어촌정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의 인가동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소유자별 촉탁등기까지 완료된 현 시점에서의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li> <li>○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도로 39필지 4,310㎡를 국·공유지 무상양여 결정 편입하는 한편, 간선농로의 겸용시설로서 새로이 건설된 직선 및 확장된 도로의 3필지 6,939㎡는 국·공유지 무상중여지로 환지계획 동의 및 인가를 받았습니다.</li> </ul>	<p>건 설 과</p>